



광남일보



나주시, 중소기업 제품 판로 개척 총력
전남 최초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 컨설팅 지원

고흥, 동남아 수출개척단 1100만달러 규모 성과
공영민 군수, 농수산물 수출 CEO 역할 강화

김효주, LPGA 포드 챔피언십 역전 우승
4타차 뒤집고 연장 승·상금 1000만 달러 돌파

해양인재 발굴·지역 상생 발전 협력
광주은행-목포해양대 업무협약

주간 제7814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4월 1일 화요일 (음력 3월 4일)

‘천하절경 무등산’, 탐방 만족도·재방문 전국 최고

국립공원 여가·휴양 실태조사

경치·등산로 좋아 전국서 발길 대중교통 이용 등 접근성 편리

광주·전남의 진산(鎭山)인 무등산이 전국 23개 국립공원 중 탐방 만족도와 시설 만족도, 재방문 의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립공원공단이 발간한 2024 국

립공원 여가·휴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무등산은 탐방 만족도 점수, 시설 만족도, 재방문 의사(5점 만점)에서 각각 4.02점, 3.82점, 4.38점을 받았다. 국립공원인 지리산은 3.96점, 월출산은 3.89점, 다도해해상은 3.81점이었

재방문 의향에서도 무등산이 4.38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북한산 4.37점, 지리산 4.32점, 월출산 4.09점, 다도해해상 4.05점을 받았다.

은 무등산(22.8%)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았다. 여행비용 만족도는 무등산(3.89점)이 가장 높았고, 북한산(3.85점), 치악산(3.79점), 소백산(3.76점), 태백산(3.72점), 월악산(3.71점) 순이었다. 지리산(3.63점)과 월출산(3.66점), 다도해해상(3.47점)으로 확인됐다.



알림

제13기 광남일보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강연



김광호 콤비마케팅연구소 원장
3일 오후 6시 호텔아트하임(구 벤틀리관광호텔)

제13기 광남일보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강연이 4월 3일(목) 오후 6시 호텔아트하임(구 벤틀리관광호텔) 지하 1층 대연회장

에서 열린다. 이번 초청 강사는 김광호 콤비마케팅연구소 원장

으로, 삼성경제연구소 선정 대한민국 대표 명강사 99명 중 최고 명강사로 활동했고, 조선일보 최고경영자 과정 스포츠분야 최고 인기강사로도

활동했다. 현재까지 총 5500여회의 특강과 1000여건의 칼럼을 진행했고 저서로는 ‘골프 마케팅’, ‘골프에서 배우는 경영학’, ‘삼성전자와 타이거 우즈’,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필드의 법칙’, ‘영웅의 꿈을 스캔하라’ 등이

- △초청강사: 김광호 콤비마케팅연구소 원장
- △주 제: 열정과 통찰
- △일 시: 2025년 4월 3일(목) 오후 6시
- △장 소: 호텔아트하임(구 벤틀리관광호텔) 지하 1층 대연회장
- △기타사항: 오후 5시 30분부터 석식제공(8층 레스토랑)
- △문 의: 광남일보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사무국(062-370-7090)
- △주 최: 광남일보

트럼프發 관세폭탄 광주·전남 초비상

알루미늄·철강·자동차 등 품목별 25% 고관세 적용 내일 국가별 상호관세 추가 발표...지역 수출 ‘악영향’ 기아차 등 생산 감소·경쟁력 약화...연쇄 타격 불가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국가별 상호관세’가 4월 2일 발표되는 가운데 미국의 무역적자국 10위 안에 드는 우리나라가 주요 타겟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광주·전남 경제계가 또 다시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역 수출전선을 이끌고 있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품목관세가 이미 적용중인 상황에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도 고율관세가 예정돼 있고, 여기에 상호관세가 동시에 부과되면 수출 감소와 생산 차질이 가격 경쟁력 약화되고 고율

불안까지 이어지는 연쇄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31일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를 발표할 계획

이다. 상호관세는 특정국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상대국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무역정책을 뜻한다. 특정국이 미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면, 미국도 해당국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

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지난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 중인 가운데 내달 3일부터는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 1위인 자동차와 자동차 핵심부품에도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그 밖에 반도체, 의약품 등의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천명했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는 개별품목 관세와 상호관세가 동시에 부과될 경우 둘을 합친 관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한국의 대미 수출에선 관세가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대미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광주가 문제다. 지난해 광주지역의 미국 수출액은 51억 달러로 이 중 75%는 자동차 산업이 차지한다.

25% 품목별 관세가 현실화 된 상황에서 상호관세까지 추가되면 국내 자동차 수출은 더욱 줄어들고 현지 생산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기아차 광주공장에서의 차량 생산 감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역 부품업체는 물론 협력업체들까지 연쇄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철강과 알루미늄 25% 관세로 이미 타격을 입고 있는 전남은 상호 관세를 더욱 예의주시하고 있다.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관세부과로 직·간접적인 대미수출 감소가 우려되는 업체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현대제철(주) 순천공장, 광양알루미늄(주), ㈜삼미메탈, 아시아T&C, ㈜세아제강 순천공장 등이 있다.

▶2면에 계속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ews1@gwangnam.co.kr

전남대·조선대 의대생도 ‘전원 복귀’

대규모 제적 우려 해소...“실제 수업 참여율 지켜봐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동맹휴학을 이어오던 광주지역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는 반전이 일어났다. 정부가 정한 복귀 최종 시한 당일엔 맞춰 요지부동이었던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한 것이다. 31일 광주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동맹휴학에 나선 전남대학교 의대생 전원 이 학교 측에 복학신청서를 제출했다. 올해 전남대 의대 총원은 893명이다. 이중 이번 학기에 등록한 2025학번 163명

집행부와 면담을 갖고 전원 복학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조선대의 경우 의대생 878명 중 신입생 150명을 포함한 189명만 이번 학기에 재학 중이다. 동맹휴학에 나선 학생은 676명으로 파악된다.

조선대는 지난 28일 자정까지 복학 신청 기한을 연장하고 학생들을 설득했으나 복학률은 저조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제시한 복귀 최종 시한인 이날 전원 복귀하면서 상황은 급반전했다.

지역의 한 대학 관계자는 “수도권 의대생들의 대거 복학과 학교 측의 제적 불가 방침이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다”며 “교육부에서 ‘전원 복귀’의 기준을 실제 수업 참여율로 보고 있는 만큼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대는 당초 복귀 시한을 이달 28일로 정했지만, 정부가 복학생 복귀 시한을 이달 31일까지로 정한 만큼 복학 신청서 수리를 검토 중이다. 조선대학교에서도 의대생들의 복귀가 포착됐다. 조선대 의대생들도 이날 대학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2025년 주민점검신청제 안내

신청기간 2025. 2. 5.(수) ~ 4. 30.(수)

지원대상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물, 해빙기 지반약화로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물 등

신청방법 온 오프라인 병행(동 행정복지센터+안전신문고 앱·포털)

점검기간 해빙기 및 집중안전점검 기간 내 점검 실시

점검자 시설관리부서(점검반 구성)

점검방법 현장 점검

제외대상
· 관리자가 있는 시설물
· 공사 또는 소송(분쟁) 중인 시설물
·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 대상 시설물

문의 남구 안전총괄과 (☎ 062-607-2954)